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영암서 성료

전남도-영암군 주최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주관

장애인 동거부부 16쌍 합동결혼식 진행 등 화합 도모

제28회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제19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15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전남도와 영암군이 주최하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2개 시·군 장애인 2000여 명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기철 전남지체장애인협회장, 전동평 영암군수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유종욱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장 등 17명이 도시사상을 수상하고, 3명이 국회의원상, 3명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을 받았다.

이후 행사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시·군 장애인 동거부부 16쌍의 합동결혼식이 진행됐다.

결혼식 후에는 시·군별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영암모범운전회가 교통 지도에 나서고, 영암여성 자원봉사회는 음료봉사를 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남 14만여 장애인 한분 한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도 “어려운 여건



제28회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15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됐다.

속에서도 밝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큰 잔치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결혼식을 올린 부들은 앞으로 보다 행복한 가정을 가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전국 고등학생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수상자들의 모습.

‘장애인 여행을 위한 플랫폼’
고교생 공공데이터 활용 ‘대상’

무장애 관광지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여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를 제시한 G01223팀(박준상, 서현아, 이현수, 김지원)이 ‘전국 고등학생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심사위원과 100여명의 청중평가단이 자리한 가운데 고교생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과 고교생에게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약 3대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개 팀은 데이터 교육과 멘토링을 거치며 결선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 정리 시간도 가졌다.

최종순위는 심사위원 점수와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여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낸 ‘G01223’ 팀이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또 기상데이터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CBDS팀(이창석, 박재민, 김찬우, 김도원, 홍세정), AED정보를 활용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도움 앱’을 구상한 공대생 팀(황운서, 윤민서, 김채현)이 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해양환경정보를 활용한 ‘바다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앱’을 제작한 해피브라보팀(전서영, 정재훈, 김현민, 송민제, 심유성) 등이 장려상(한국기업데이터기관장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뉴스1

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전국 2위’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장애인의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억7200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교육청 23억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액수다.

서울과 전북에 이어 강원(14억8000만원), 경북(14억원), 전남(12억7000만원)이 뒤따랐다. 반면 울산과 경기, 인천은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담양군, 사회복지 단체와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서비스’ 업무 협약

내 마을에서 돌봄 제공 받아

담양군은 지난 11일 5개 지역 사회복지 기관단체와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환경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협력해 다양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최형식 담양군수, 문영수 담양군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강성남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 이동오 담양군노인생활시설연합회장을 비롯한 담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립종합복지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과 사회복지 단체는 군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의 성공적 운영과 돌봄서비스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최형식 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마을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서비스는 1인가구 이웃 안부살피기, 마을공동급식 경로당 운영, 주택 및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긴급일시보호, 활동 감지기기 설치, 퇴원환자 영양식 배달 등을 진행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